



수출 포장산업 현황

Trend of export Packing Industry

이 상 재 / (주)인테크씨엔에스 대표이사

1. 수출포장 현황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로 수출포장은 늘 경기의 흐름에 가장 일찍 영향을 받으며 또한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늘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산업군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수출의 흐름에 따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의미 일 것이다.

얼마 전 마스크에서 문래동 철제상가의 다크멘터리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의 수출포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 수출포장은 3D 업종 중에서도 유독 더 힘겨운 분야이므로 현장에서 포장상자를 생산과 하조를 하여야 할 인력 발굴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

수출포장은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생산되는 마지막 공정의 단계라는 이유로 '원가절감'이라는 큰 목표 앞에 가장 먼저 내몰리다 보니 포장업체의 생존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포장비를 낮추어야 할 것인가"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버렸다.

수출포장이 갖고 있는 안정성이나 마케팅적

인 부분은 사라진지 오래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만약, 지금처럼 가격만을 고집하는 시장경제가 계속된다면, 합리적인 포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머지않은 미래에는 수출포장을 할 인력과 기업의 부재로 수출을 하기 힘든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의 지나친 원가절감 요구는 포장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원가절감 요구에 따라 포장회사는 질적으로 낮은 원자재를 구입하게 되고, 국외의 일부 업체가 국내에 진출해 질 좋은 포장 환경을 토대로 큰 수익에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만들게 되는 것인데, 현재 일부의 대기업에 의한 국내업체의 파국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수출포장은 여느 포장과 달리 포장상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작업자가 넣어 완충과 고정을 해서 포장을 완성해야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여타의 포장재 생산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는 수출포장에 있어서의 포장작업자의 교육이 절대적이라는 의미이다.



대개 포장작업의 인원은 선임자들에 의한 전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전수과정은 새롭게 변화되는 품목의 생산 제품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을 부족하게 하여 클레임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수출포장 인력들에게 각각의 생산 제품의 특성에 맞는 포장 능력을 배양시켜줄 교육의 장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그들에 대한 처우 또한 기대하기 힘들어 새로운 인력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포장은 물류와 포장 사이에서 갈 길을 잃은 듯 한 그런 모습으로 힘겹게 지탱하고 있다.

2. 국내 수출포장 자재 및 용기 현황

수출포장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수출포장에 들어가는 자재의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출포장을 요하는 제품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또한 제품의 포장에 써야 할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다.

크게 수출포장은 원자재면에서 과거, 목재가 전부인 것인 양 사용 해오던 것이 최근에 들어 여러 형태의 원자재를 사용해 수출포장을 하고 있어 그나마 고무적이라 하겠다.

근래에 들어 포장재로 사용을 하는 목재(침엽수류)에서 발생하는 해충에 의해 열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조금 더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기왕에 처리를 할 것이면 아예 건조를 통한 포

장재의 기준을 만들어 버린다면 열처리든 당연하게 처리를 하게 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또 열처리에 대한 검역소에서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각각의 포장업체가 업체로부터 주문제작한 설비의 열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각각의 업체가 작은 양을 자주 처리하게 되면서 낭비하는 에너지의 소모가 지나치게 크므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만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 처리방법에 의해 대다수의 업체가 그 피해를 받는 현실 속에 국가에서는 친환경을 외치고 CO₂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이는 국가 정책에 역행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출포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목재의 사용량은 현재에 들어 많이 줄어들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합판의 사용이 많아진 것은 운송의 방법이 Bulk 운송에서 Container 운송으로의 변화함에 따라 가격과 작업의 능률이 높은 합판이 수출포장 중 중량률에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또한 Container 운송은 수출에서 적용하기 힘들었던 골판지를 적용하게 하였고 이젠 대략 1CBM/1TON에서는 골판지를 많이 검토하고 있으며 그 수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다만 각각의 기업이 사용하는 양을 알아내기 힘들고 또 많은 지함업체가 갖는 영업의 부분이기도 하여 그 양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에서 보이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할 정도로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좀 더 포장 개발을 이룬다면 골판지는 수출포

장 시장에서 아마도 목재를 넘어서는 시장 점유율을 가까운 시일 안에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바는, “내가 골판지를 하기 때문에”, 혹은 “목재를 하니까”라는 포장업체의 전문성에 한계를 긋지 말고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모든 자재가 수출포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각각의 자재특성을 혼합한 새로운 수출포장을 독려할 때 새로운 용기의 탄생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사용 기업들의 발 빠른 가격경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영세한 많은 지합 업체들이 연속적인 원지의 인상에 맞서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 아래, 그 단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가공 소재의 다양성으로 맞서는 길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는 비대해진 원지 업체들에게 시장을 맡기게 된 계기가 결국 일부의 업체에서는 골판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뼈아픈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실은 아마도 많은 식품관련 업체들이 골판지 업계의 대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준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된다. 또 많은 지합업체가 개발에는 머리를 돌린 채, 편안한 일거리만을 고집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골판지 외에 플라스틱 역시 수출포장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플라스틱에 관련된 기업이 수출 포장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채 접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플라스틱의 소재가 갖는 장점을 수출 포장에 조금 더 접목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그 시장도 골판지 시장을 넘어설 그런 소재임이 분명

할 것이며 몇 년 안에 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리라 기대를 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특성 상 목재가 갖는 함수율과 종이가 갖는 수분,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마도 수출포장에서는 가장 매력이 있는 소재로 보이고 있다.

또한 스틸처럼 결로 현상이 있어 수분을 품지는 않아도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적어 가장 뛰어난 소재로의 변신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목재 포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일부의 대형화물에 대한 대체로는 철재가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과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화물포장에는 철재를 이용한 목재의 혼합상자를 많이 사용해 왔지만 이제 그 시장은 대형이 아닌 중소형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의 CKD 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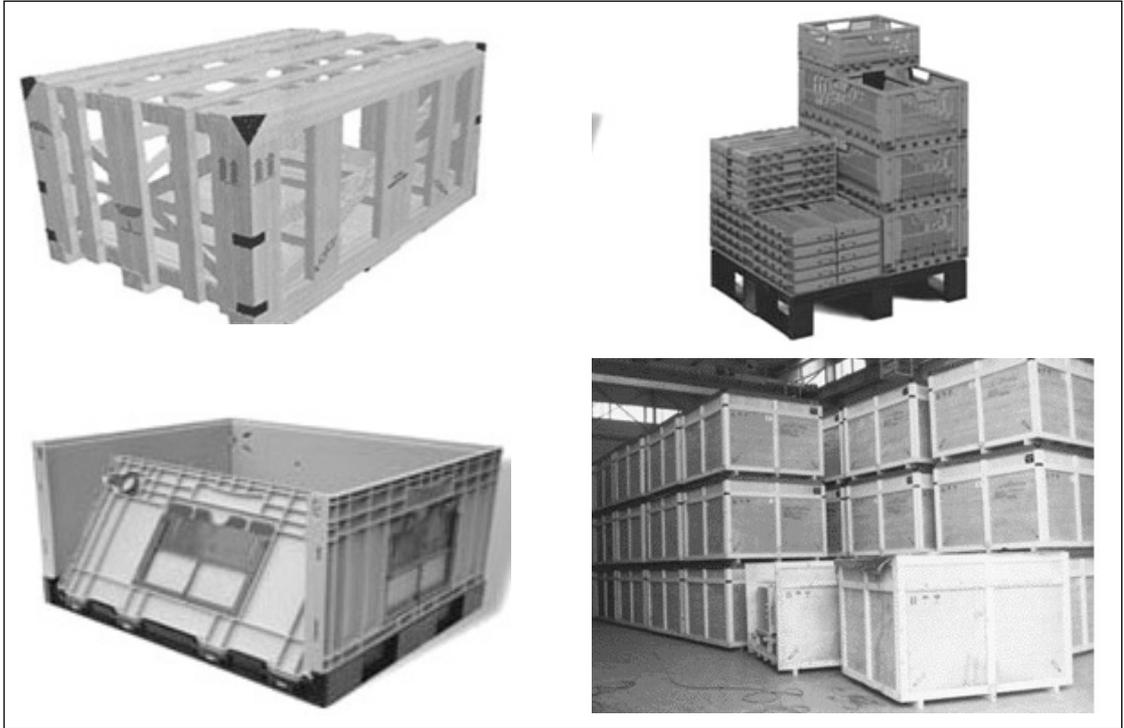
또한, 일부 전자제품의 포장에도 수출용 OUT BOX에 사용하면서 조용히 그 시장이 넓혀져 가고 있지만 수출포장은 단일 소재가 아닌 복합 소재로의 변화가 필요한 포장 시장이며 아직 수출 포장에 필요한 자재 중 진공포장용 AL 증착원 단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는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산업용 수출포장의 자재는 목재 그리고 골판지, 플라스틱, 철재 등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적용이 되며 서로 혼합가공이 가능한 방법의 길을 찾아 적용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합판의 경우 물론 친환경 가공기술로 환경 친화적인 가공 합판을 만들어 간다지만 그래도 목재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사용 후 처리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



[사진 1] 다양한 수출포장 용기



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향후 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규에 미달해 수출포장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오게 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도 포장의 문제로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각각의 소재업체는 자신의 소재로만 포장상자를 완성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향후에 발생될 환경적인 부분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수출포장용 상자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즉, 각각의 소재에 장점을 이용해 작은 원소재 사용을 유도하고 재사용을 가능케 하는 방법, 또는 포장물을 해체 후 간단한 처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해외의 바이어로부터 더욱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포장에서 해야 할 것이다.

2-1. 목재

수출용 목상자는 수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또 목재는 현재 시행하는 포장재중 가장 오래된 자재로 그 방법과 쓰이는 용도는 한정적이지만 그 자재로써의 근본은 가장 친환경적인 포장소재이다. 따라서 목재포장의 입문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다른 소재와의 혼합 또는 또다른 소재를 통한 포장설계에 편리한 적용이 가능하며 제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가장 뛰어난 친환경 포장 재료로 거듭날 수 있는

자재라고 하겠다. 목재는 수출포장이 갖는 운송 조건과 하역 등 기타의 작업에 적절한 재료로 수출포장에 가장 근본적인 포장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진화하여 왔으나 지나친 경쟁과 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일부에서는 과거보다 더 낙후된 방법의 포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형태로는 목상자를 비롯 목재파렛트와 스키드포장 등에 사용되고 있다.

① 가장 뛰어난 친환경 재료이다. - 계획조립 및 벌목

② 다품종 소량에 적합한 재료이다. - 모든 작업이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운반하역에 따른 자체적 완충능력이 있다 (충격에 따른 제품보호능력) - 목재의 완충성

④ 포장 상자내의 온습도 변화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 적절한 건조(대기중 습도) 의한 대 호흡조절을 통해 상자내의 습도조절 능력이 있다.

⑤ 복원력이 뛰어나다. - 다른 포장재에 비해 탄성이 매우 좋다.

⑥ 마찰력이 커서 고정효과가 크다.

2-2. 골판지

수출포장의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장이 내수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경량화물에 적용하는 포장 방법이다.

포장비용이 목재에 비해 저렴하고 파레타이징을 통한 물류 합리화를 이루는데 주로 사용되는 포장 방법이며 목재의 방역 때문에 많은 애로를 갖는 많은 기업에서 선호하는 포장이지만 골판

지의 특성에 따라 모든 패키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현재는 약 1Ton 이하의 화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패키징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더 높은 중량화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골판지 단일로는 그 한계가 있어 다른 자재와의 병행을 통한 포장개발이 가능하다.

① 경량화물에 적합한 포장재료 가장 저렴하다.

② 단일품목의 대량화물에 적합한 포장 방법이다.

③ 파렛트 또는 스틸과 접목한 변형작업이 용이하다.

④ 포장작업이 쉽고 빠르다.

⑤ 포장해체 후 폐기가 쉽다.

2-3. 철재

철재를 사용한 포장은 과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제품에 한하여 목재만으로도 포장설계가 부족한 경우 그를 보완하는 용도로의 이용해 왔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Pallet를 비롯하여 상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아가고 있다.

가장 먼저 철재를 이용한 포장은 항공기에 사용하는 Slim Pallet로 재질은 가벼운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항공기 화물칸을 구분해 그에 맞게 제작 사용해 왔으며 항공기에 사용하는 항공용 컨테이너와 배에서 사용하는 해상 컨테이너가 그 시초라 볼 수 있다.

철재는 그 특성을 잘 파악하여 설계를 한다면 지금보다 그 기능이나 효과가 더욱 좋은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소재로 앞으로 그 설계기법을 개발 발전 할 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현재 제작하는 Steel Pallet의 경우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목재파렛트나 이후 개발된 플라스틱 파렛트의 형태를 유지하며 재료만



을 철재로 사용한 것으로 항공용 파렛트를 생각 하며 조금은 변형을 가져가는 것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 납품용 Steel Pallet를 사용 및 재사용 하는 것으로 많이 개발되고 그 이후, 수출에 있 어서도 회수용으로 사용했다. 운임의 가파른 상 승에 회수비용이 증가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는 추세지만 일회용으로는 자동차에서 KY 용도 로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철재 상자에서 굳이 철재만을 고집하려는 부 분보다 조금 더 다른 패키징 재료와의 융합을 고 려해 패키징을 설계한다면 보다 나은 새로운 패 키징을 기대할 수 있는 패키징 재료로 발전할 것 이며, 단순히 철재라는 생각에 그 무게 및 비용 이 추가적으로 높을 것이란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 ① 재료에 대한 Loss율이 작다.
- ② 조립강도가 일정하다.
- ③ 변형에 대한 복원력이 목재에 비해 작다.
- ④ 충격흡수력이 작다.
- ⑤ 강도 변화가 작다.
- ⑥ 포장해체 후 새로운 수익 창출

2-4.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수출용 상자에 도입하기는 힘들다.

플라스틱으로 상자를 제작하기에는 아직은 부 족한 부분이 많으며 다만 재생플라스틱을 이용 한 Pallet를 이용한 포장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을 뿐이다.

초기 플라스틱 골판지가 생산되며 각 공산품에 많이 유행을 하였으나 절단 가공부위의 날카로움 이 안전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종이 골판지의

품질향상으로 사용량이 축소되기도 하였다.

내수용도로 조립식 상자를 개발 자동차 부품 의 납품에 사용하고 있으나 플라스틱만으로서의 패키징 상자는 그 한계가 있어 타 소재와의 혼합 을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중량에 민감한 항공용포장과 방 수를 요하는 일부 패키징에 도입이 가능하다.

- ① 소성을 위한 금형이 필요해 초기 비용이 크다.
- ② 단일품종의 대량 패키징 작업이 가능하다.
- ③ 단일품종의 대량 패키징 작업 시 비용이 적다.
- ④ 단일 품종의 패키징 작업 시간이 작다.
- ⑤ 외부로부터의 오염이 작다.
- ⑥ 타 소재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
- ⑦ 타 소재와의 혼합작업이 용이하다.
- ⑧ 상단에 사용 시 방수성이 뛰어나다.

3. 수출포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 실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포 장은 수출포장에 비한다면 그 발전은 눈부시도 록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개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가장 가까이 와 닿는 그런 포장 이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출포장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유지하 기 위한 것으로 그 모든 것에 앞서 발전해야 할 분야이지만 그 필요성은 그 누구도 강조하지 않 는 분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쩌면 더 후 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경쟁력에 대한 원가 절감이란 차원에서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기업이 그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 른다. 또 십 수년을 한 회사의 포장을 하고 있으

면서도 발전을 저 버리고 늘 같은 포장으로 일관하는 여러 포장업체의 문제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 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담당자도 일정기간을 지나면 타 부서로의 전환에 의한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실정에서는 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 물류를 바라보면 그 시장의 그 크기를 가늠할 때 너무도 열악한 포장이라 하겠다.

물론 이는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 물류의 발전이 국가와 기업의 생존권에 밀접하겠다고 하겠지만 정작 포장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어찌면 늘 모래성을 쌓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얼마전 어느 중소기업체에 방문해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는 참담함을 느꼈던 것이 생각한다.

그 업체가 중국에서 골판지와 Pallet 및 보강자재까지를 수입 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황당하여 이렇게까지 우리의 산업포장은 낙후되어 버린 것일까라고 생각했었다. 필자와

같이 산업포장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정녕 이 나라에는 필요가 없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까지 하게 된다.

기업이 해외에 마케팅을 하며 수많은 돈을 뿌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회사의 포장이 그 마케팅에 미치지 못하는 포장으로의 이미지 실추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기업 풍토가 언제 사라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 본다.

수출된 제품의 포장에는 '수출국'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D업종 가운데도 너무나 힘겨운 3D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수출포장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출포장 인력들에게 포장 능력을 배양시켜줄 다양한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국내 기업들이 수출 포장에 대한 의식 개선 역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포장에 대한 전략적인 기술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업계 발전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